

보니엘의 새 아침 (창 32:22-33:11)

예수원의 창립자인 대천덕 신부님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워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8시 경에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밤 10시에 끝나야 할 일들이 두 시간이나 일찍 끝난 것입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다 끝났는데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잠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친구가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그는 그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당시 경험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주님께 계획이 무엇입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묻지 않았다면 그 뜻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성령께서는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까요?”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1.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아 여러 명의 처, 자식들과 노비와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의 발걸음과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 20년 전 형의 분노와 살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야곱은 에서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여 살기 위하여 두 번의 잔피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 모든 재산을 ()로 나누었습니다. (창 32:8)

2) 예물을 ()가 아닌 ()로 세분화했습니다. (창 32:19-20)

3. 모든 식솔들을 압복강을 건너게 한 야곱은 강가에 홀로 남았다가 한 사람과 씨름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 야곱은 뼈가 으스러지게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서 야곱은 무엇을 했습니까?

4.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새로 바뀐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1) 평서형: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

2) 기원형: 하나님이 (),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5.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여 있었습니까? (창 33:10)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 주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보다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고백하는 인생되게 하소서.
-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벤엘의 하나님'과 '브니엘의 새 아침'을 경험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